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례 10:15 오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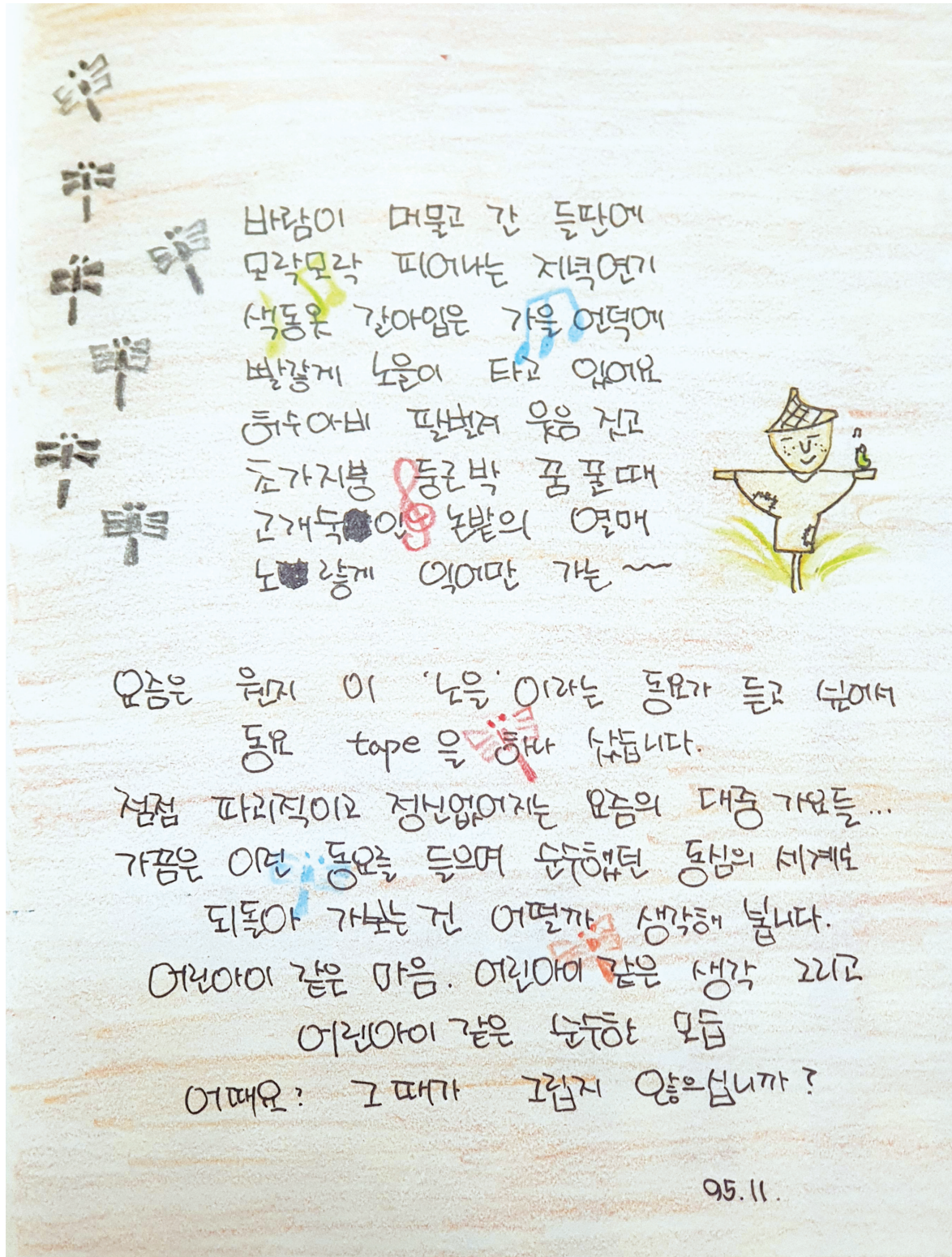
492
2024.11.10.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2-3 견기행사 | 6 장애인사역부 | 8-9 목사안수 / 세례소감 | 12 도서기증 |
| 4 외국인유학생선교부 | 6 유아숲 야외예배 | 10 족구대회 / 꿈꾸는3막 | 13 호스피스사역 |
| 5 청년부 청년순례 | 7 주치안내부/어와나 | 11 수능기도문 / 중보기도부 | 14 진중세례 / 섬김과나눔 |



가을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동요가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노을'이라는 동요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이 가을.. 30년 전 썼던 글처럼 이런 동요를 들으며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로 되돌아 가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가 같은 마음, 어린이가 같은 생각 그리고 어린이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안수집사회
걷기 행사

걷기 좋은 계절 가을!

해마다 이맘 때면 들로 산으로 그리고 종교역사탐방을 가곤하는데, 올해는 좀 색다른 것이 없을까 하는 임정식 회장님이 던진 화두에 모두가 긴장!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니어 교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임정식 회장님의 뜻을 살리면서도 봄에 남산교회와 함께 했던 걷기행사와는 조금 다른 어떤 걷기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어떤 걷기행사가 될까? 그래서, 생각해 냈던 것이 우리 안의 특별한 이웃들과 함께 걷는 것이 좋겠다는 박준명 안수집사님의 아이디어와 행사 이름으로 '함께 걷는 가을길'을 구태호 안수집사님께서 제안으로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안의 보통의 이웃인 장애인들은 특별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고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 그냥 순종하고 잘 따라가보자는데 마음이 모아졌다.

사랑나무 엄인호 안수집사님이 첫 전화부터 흔쾌하게 그런 행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셔서 행사 준비는 탄력을 받았다. 그리고는 곧 참가할 수 있는 사랑나무 아동, 보호자, 교사들을 확정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신다. 사랑나무 아동들은 낯선 환경에 대해 빨리 적응하지 못하므로 익숙한 보호자와 교사의 동행이 필요하다. 엄인호 집사님의 적극적인 호응에 탄력을 받아서 싯딤나무와 에바다를 담당하시는 탁동원 안수집사님에게도 연락. 역시 흔쾌하게 호응을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일을 추진하게 되면서 또 따라오는 고민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는 것이다. 장애인을 앞세우면 교인들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느낌을 줘서 일반 참가자의 호응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장애인이 참여함을 얘기하지 않으면 와서 보고는 당황하실 수도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우가 어우러져서 함께 걷는 행사의 취지가 퇴색될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우리 안의 특별한 이웃과 함께 걷자는 슬로건을 고안해 냈는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 또한 차별일 수 있다. 장애인은 그냥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지칭하는 순간 우리와 다른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차별적인 시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고민이 든다.

하지만,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인 등록제를 취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북유럽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다. 임신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무릎을 다쳐서 걷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따지면 점점 고령화되어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기 힘든 사람들, 버스를 타기 힘든 사람들도 장애인이다. 그 뿐만 아니다. 나는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 사람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아는 사람을 멀리서 보면 빙 둘러가서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대표기도를 시키면 갑자기 멘붕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된 나는 천상 대중 노출 기피 장애인이다. 이런 나를 불러서 자꾸 일을 시키고 교인들을 만나게 하고 열혈 장로님과 집사님들 때문에 이렇게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모두 우리 안의 특별한 이웃이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특별한 이웃들이다. 그런 이웃들과 교제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행사 전날의 역대급 가을비와 함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마음에 금세 먹구름이 드리운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해대는 고질병이 또 도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이 뭐 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끝까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다행히 더 이상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다.

준비한 선물들을 준비한 봉투에 담고 있는데 행사 시작 10분 전인데도 예상한 인원의 절반도 안 온 것 같다. 그러게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좀 더 강하게 식사와 선물을 축소하자고 주장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실내에 들어가서 걷기 전 행사를 진행한다.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참 낯설고 나를 떨게 하고 긴장시킨다. 그래도 기도를 시키지 않고 스트레칭을 지도하는 것을 시키니 그게 어디냐. 맨날 하는 스트레칭, 맨날 환자의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런데도 앞에서 둘둘셋넷하면서 스트레칭을 선창하는 것이 낯설다. 역시 내 장애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강권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어서 그 낯선 것을 계속하며 살아가게 될 것 같다.

교회 로비에서의 식전 행사 후 걷기 시작했는데,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다. 때로는 발달장애 아동을 업기도 하고, 때로는 교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전동보조기구를 탑재한 휠체어 탄 장애인과 대화를 하면서 걸었다. 전동보조기구를 탑재해서 이동하는 속도는 나보다 훨씬 빠르는데도 강동구의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한 시간 반이나 걸려서 교회에 와서는 안내 봉사까지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숙연해진다. 2-30분이면 올 거리는 1시간 반이나 걸려서 오면서도 즐겁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장애인 성도가 있는데, 나는 그만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한 적이 있는지 순간 반성하게 된다.

교회에 도착해서 드디어 식사시간. 외부 업체를 섭외해서 봉사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즐겁기만 할 줄 알았던 식사시간인데, 어라 배식을 하느라 고생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신다. 억지로 외면하고 그래도 즐거운 식사. 배식을 한 집사님의 전언으로는 준비한 닭날개가 딱 4개 남았다고 한다. 200인분을 주문을 했지만, 업체에서 나름 넉넉하게 준비했을 텐데도 음식이 딱 떨어지게 교인들이 와 준 것.

식사를 마치면 모든 행사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엄청난 설거지가 남았다. 20여 분이나 되는 넘은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와 청소를 하느라 분주한데 그 표정엔 지친 모습과 짜증이 보이지 않는다. 설거지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함께 거든다. 설거지 끝. 행사 종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그런데 가끔 나는 봉사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생각하곤 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준비가 부족한 작은 행사에 사랑하기 위해 2백 분 넘게 오신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맑게 갠 하늘을 직접 만들어주셨고, 산상수훈을 통해 코스 선정부터 걷는 동안 안전까지 책임지게 하였고, 발달장애 아동에게 코스 내내 손에 잡히고 옆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였고, 멋진 전동휠체어를 탄 성도의 교회를 향한 열심에 감동하게 하였고, 이름을 다 모르는 성도님들의 설거지 봉사에 감탄하게 하셨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나도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게 되는 하루였다.

박준명 안수집사 / 안수집사회 부회장

외국인 유학생 선교부

서울 도심에서의 자연을 만끽했던 서울숲 문화행사

외국인 유학생 선교부에서 사역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선교를 해보고자 시작했던 이 사역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면하는 행사는 아주 필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 부서에서 문화행사는 봄가을에 각각 한 번씩 일 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 올 상반기 봄 행사는 예술의 전당 국악 공연을 관람하였고 이번 하반기 문화행사는 서울숲 탐방을 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학급수는 총 12개 반으로 초급반이 9개 반, 중급반이 2개 반, 고급반이 1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년 대비 2개 반이 더 늘었지만 초창기 문화행사가 참여인원이 많아야 30명이었고 3년 전부터는 5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치러질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신청인원을 행사 3주 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행사 당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서 7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 그 학생들 중에는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아 우리 행사에 가족 모두가 참여하기도 한다. 구성원의 변화는 국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학생이 주를 이루었던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가나, 나이지리아 학생까지 들어와 있어서 종교 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슬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행사가 외국 유학생들의 거대한 만남의 장이 펼쳐지는 큰 행사가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 행사가 너무 기대된다고 시작 전부터 기대감을 내비쳤던 학생들 때문에 너무나 행사를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다. 기대를 저버리듯 일주일 전부터 예고되는 날씨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걱정되는 마음을 모르는지 야속하게 행사 전날 장대비가 내리고 예년 이맘때 이례적인 폭우라는 뉴스만 흘러나왔다. 기도 중에

한 가닥 희망은 지금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행사를 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날씨를 허락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행사 당일 아침에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그친 상태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 집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란한 태양을 내리 비추고 있었다.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장소에 도착해서 단체사진을 찍고 서울숲의 나비정원을 시작으로 소원의 폭포, 꽃사슴 방사장, 바람의 언덕을 보고 가족마당으로 이동하여 배분된 도시락을 돛자리위에 펼쳐두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시작했다. 오후에 거울연못, 군마상, 조각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연신 즐거워서 떠드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는 모두가 그림 속 모델로 변신하는 듯 했다.

주말이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행사 또한 많이 진행하고 있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고 핫플레이스이다 보니 SM타워도 있어서 방문해보고 몇 시간을 걸었음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다 행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행사를 하기 한 달 반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장소선정부터 서로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행사 당일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을 통솔해 주시는 우리 부서 분들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샘솟았다.

행사를 마치고 메시지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용의 특을 수없이 많이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금은 잘 섬기고 있지 않나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어졌다. 주님이 하라 하시고 주님이 다 해주시니 주님만 믿고 계속 외롭고 힘든 외국인 유학생들을 잘 섬겨보려 한다.

김영화 집사 / 외국인유학생선교부 부장



청년부
청년순례

청년순례 - 이 땅을 향한 소명을 끝까지 따른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10월 중순, 주님의교회 3040 청년 15명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합정역 근처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어릴 적 처음 갔을 때 별다른 감흥이 없었기에 이번 청년순례도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안내 예약을 한 저희 팀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양화진의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광혜원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가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던 중 이질에 걸려 돌아가신 후,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한성과 가까운 양화진이 매장지로 정해지면서 양화진 묘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땅을 사랑한 수많은 외국인과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3·1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 한국의 교육과 독립에 힘쓰고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해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긴 헐버트 선교사, 배재학당을 통해 한국 교육에 헌신한 벅커 선교사와 정동여학당(현 정신여중고)를 설립한 애니 엘러스 선교사 등,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게일 선교사였는데, 성경 번역에 헌신하며 했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천주, 상제, 하나님, 하느님 등 번역자에 따라 표기가 다양했는데, 1911년 ‘성경전서’를 출간하면서 유일하신 한 분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정해지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게일 선교사 덕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묘원 탐방 후 방문한 양화진 홀 전시 공간의 입구는 어두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어둠던 조선 땅을 표현한 공간에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역만리 건너온 거친 바다를 지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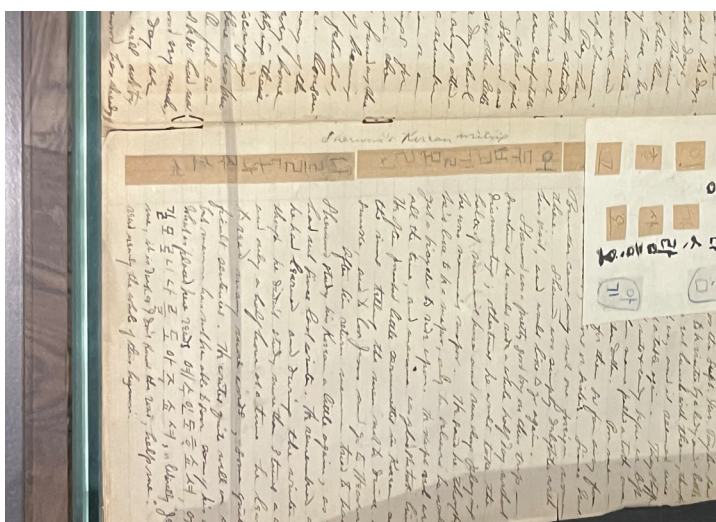
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1882년 처음 한국어로 번역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였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사역하던 중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한글 성경 번역을 결심하게 되고, 그 덕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습니다.

양화진 방문을 마치고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후속 모임에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들 대부분 저희보다 어린 나이에 고국에서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왔는데, 자신과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내어드린 선교사들의 헌신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묘원 한편에는 영아와 유아들의 무덤들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이곳에 묻어야 하는 선교사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향한 소명을 끝까지 따른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일기 중, 한글로 적힌 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로니 나를 도아주소서.” 어두웠던 조선 땅에서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한 선교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전해준 복음의 불씨를 통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청년순례를 계기로, 주님의교회 청년들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민석 청년 / 청년부



장애인사역부
가을맞이 연합예배

좋은 사람들의 좋은 날

지난 9월 29일과 10월 6일, 두 주의 걸쳐 장애인사역부 가을맞이 연합 예배가 정신학원 로댐정원에서 있었습니다. 주께서 수놓으신 아름다운 가을의 색깔들로 뒤덮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좋은 사람들의 좋은 날(갈 5:22-26)'을 허락하사 '숨만 쉬어도

사랑스러워!(시 131:1-3)'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사역부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여러 부서 내 행사들을 위해 기도와 배려, 그리고 큰 사랑으로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유아숲
야외예배

맑고 시원한 바람 속의 아이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에 유아숲 친구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활동을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함글함글



주차안내부
홈커밍데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주차안내부 홈커밍데이를 하였습니다. 지난 36년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처음 주차안내부의 문을 내가 두드렸으나 이는 주님께서 보내신 첫 사역지였을 것입니다.

은퇴하여 헤어졌던 옛 사역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주차안내부 홈커밍데이 행사를 주관하여 현재 섬기는 분들과 이곳을 떠난 선배 사역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사역 해온 분들도 있고 금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분들도 있어서 그간의 주차안내부의 아름다웠던 미담들을 웃음으로 나누면서 저녁한 때를 웃음으로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의 말 한마디가 겸손을 다하는 마음 표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보람은 교회를 찾아오실 때 편안하게 주차를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한결 보람을 찾습니다. 한분 한분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주님의교회 주차안내부는 생겼으며 또한 주님의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보다 먼저 찾아와서 어둠을 뚫고 섬김을 시작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이 주차안내부이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여온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편하게, 친절하게, 지혜롭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맡은 안내 장소로 떠나는 사역자들의 모습과 얼굴에서도 아름다운 미소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쌀쌀하고 추울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매주일 일년내내 계절에 관계없이 기다리며 묵묵히 지키고 있는 분들이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때론 누군가가 불친절하게 큰소리로 불평을 해도 참고 환한 웃음으로 미소를 짓는 천사들이기에 말입니다.

홈커밍데이. 오늘 선배 사역자들을 위해 마련한 친목의 자리는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서도 정감이 흐르며 서로 열싸안고 반가워하는 이들의 모습에서도 사역자로서의 아름다움이 배어났습니다. 한분 한분 그간의 미담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나의 모습이 주님을 대변하는 섬김의 자세가 더욱 빛나는 것 같아서 ‘듬직하기 그지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주차안내부에 들어오면 나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다할 때에 교우님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에 말입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주님의교회에 등록 한 지가 근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첫 사역지를 주차안내부로 정하고 그날부터 10여 년을 사역해 왔으며 젊었을 시절 거수경례로 살았던 내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나눌 때에, 그 인사를 통해 진정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전해 보았습니다. 인사는 존경과 친애의 표시로서 예절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의 첫걸음으로 마음가짐의 외적 표현이기에, 말이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행동으로 보일 때 진정한 인사가 됩니다. 인사의 습관을 바꾸며 주차 차량 한 대 한 대마다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며 나의 내면의 감사함을 전했을 때 이를 받는 교우님들은 마냥 기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마음속 깊이 우려나온 나의 인격체이며 사명입니다. 이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오섭 은퇴안수집사 / 주차안내부

어와나
교사영성수련회

복음, 진리로 자유하라

제18차 어와나 교사 영성 수련회가 10월 25일(금)부터 10월 26일(토)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2024년 어와나 교사 영성수련회에는 1,000여명이 넘는 전국 어와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사로서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 진리로 자유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성 수련회에는 장승권 목사님(청주서남교회 담

임)을 모시고 주제 강연을 하고 ‘더 코드 미니스트리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어와나 어린이 합창단’, ‘한울장로회성가단’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성수련회에서는 3학년~6학년 과정인 ‘티앤티’정지영 디렉터, 중등 과정인 ‘트렉’의 최윤희 디렉터, 송영주 선생님이 10년 봉사 시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5~6세 ‘커비즈’부터 고등과정인 ‘저니’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안수집사 / 어와나(커비즈, 스팅크, 티앤티) 부장



목사안수소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

샬롬!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2년간, 성도님들을 통해 참된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며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사역에 임하는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보고 배운 것을 늘 잊지 않고, 맡겨진 영혼과 교회를 잘 섬기는 목사로 살아가길 다짐해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계원 목사 / 청소년숲 고등부



목사안수소감

복된 청지기의 자리

안녕하세요. 영아부 이영선 목사입니다. 성도님들께 영아부 전도사 부임 인사를 드린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새로운 직분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신 직분에 감사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 속 장면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였습니다. 잔치 자리에 부족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말씀 따라 순종했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하인들, 즉 청지기였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바로 청지기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청지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복된 청지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순종함으로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묵묵히 항아리를 채우는 하인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 목사 / 유아숲 영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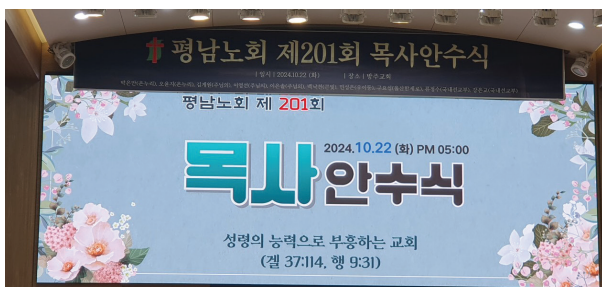


목사안수소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유아숲 교역자 이은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로 목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임직을 준비하며 7살, 교회 부흥회에서 “하나님! 의사선생님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올려드린 고백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설교자, 하나님 마음이 없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12년 전,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 ‘항상 이 떨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의 떨림과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닦아 없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은솔 목사 / 유아숲 유아부, 아가정원



세례자 소감

지혜와 용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

저는 제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일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 자기 전 기도를 한 뒤 잠에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만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가 제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꿈과 목표가 생겼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높은 언덕 앞에서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둘러싸여 있던 제게, 아버지께선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다시 성실하게 해보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고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매일 자기 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가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음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 순간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알게(깨닫게) 된 것

세례 교육을 받으며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례 전후 신앙과 믿음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번 부족한 저 자신이 부끄럽기에 바빴고, 제가 한 다짐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만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으며 보낸 은혜로운 시간과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를 통해, 이렇게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며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저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주를 고백하고 자녀가 되어 더욱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평생 마음속 깊이 품고,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혜와 용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제 앞에 놓일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조금씩 채워나가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예원 성도



세례자 소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불교집안에서 자란 제가, 아내를 만나 교회에 나가 20년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 없이 다니기만 했습니다. 가족의 세례권유도 계속 받아왔지만, 최소 성경을 1-2번은 읽어야 한다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삼다가, 코

로나 기간 중 성경 2독을 하고 현재 3독 중에 세례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힘들고 소외된 층을 외면치 않고, 주님말씀에 부합된 삶을 소망하며, 묵묵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해봅니다! 임종현 성도



세례 : 강영석, 구명선, 권준영, 김민정, 김범선, 박아진, 은명희, 이담, 임종현, 정은미, 정인승, 정주영, 정주훈, 함예원

입교 : 김근표, 권혜인, 김시은, 김예준, 심모아, 안병욱, 정병부, 정여원, 최성현, 최하영

남선교회
친선 족구대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친선족구잔치

2024년도 끝날 것 같지 않던 늦은 무더위가 물러나며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해 족구대회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족구대회 언제 하나요 궁금해 하셨습니다. 내심 올해는 족구대회가 없기를 바랬는데... 9월까지 아무 준비가 없으니 남선교회 연합회장님이 나서서 족구대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직장과 가정에 분주한 일들로 여유가 없었는데 조바심과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준비하며,

올해는 대회 날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9월 중순은 이른 추석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교회 행사로 결국 10월 20일 주일로 대회날을 확정하였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이런 저런 우여곡절에도 중간에 애쓰신 차승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 말에 대회날이 정해져 마음은 급한데 준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다목적관 체육관은 내부 인테리어로 공간이 줄어 대회를 하기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좁아도 다목적 관에서 하자는 의견과 운동장에서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학교와 관계가 좋으셨던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테니스코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명훈, 서철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후의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대회에 대한 광고가 주보와 영상으로 나가고, 심판진이 구성되고, 족구 선수들이 모집되고, 경기 용품과 홍보 기념품, 간식과 먹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심판으로 힘써주신 김창안 장로님, 오광순, 김천식 안수집사님, 운영을 맡아주신 박성갑, 박진현, 박준명 안수집사님, 유범석, 성낙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회,

대회날은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분이 찾아오시어 응원도 하시고, 또 열렬결에 선수로 뛰시기도 했습니다. 늦어진 날짜로 짧아진 낮 시간은 대회를 조금은 급하고 정신 없게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잊고 넘긴 마침 기도까지 온전히 치러내며 마쳤습니다. 모두가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동네 잔치같은 자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담임목사님, 부목사님들, 교역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치며,

잔치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온전히 혼자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해보니 자신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교회 사역을 함께하실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 주중에는 지방에 있다 보니 혼자 준비하는게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일손과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신 이명기 남선교회 연합회장님과 각 회장님들, 신영숙 여전도회 회장님과 각 회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시작된, 족구잔치 준비의 과정과 결과를 온통 감사함으로 끝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P.S. 족구대회는 남선교 팀이 5년 만에 우승을 탈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승균 안수집사



꿈꾸는3막
가을소풍

나이들이 아름다운 꿈꾸는 3막

나이들이 아름다운 신앙교육과정 '꿈꾸는3막' 플러스를 마무리하며 10월 24일 가평우리마을에서 사랑의 교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함줄함울



수능기도회

수험생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시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사 41:10)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는 시험장까지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자녀의 마음까지 지켜줄 수 없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이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넘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입시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약속하신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입시 전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으로 주시어, 이후 진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에게 성경적 교육관을 주시어,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입시 위주 경쟁주의와 성공 신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 경쟁에서 이겨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수능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거나, 잘못된 가치와 욕심을 따라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진학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고전 9:25)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험 전까지 남은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게 하시어, 그 준비하는 시간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 공부해 온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수능 당일에는 지금까지 공부해 온 내용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력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르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아는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긴장하여 평소에 알던 문제를 놓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욕심을 따라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정직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 결과로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능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어 지금 이 순간이 긴 인생 중 한순간에 불과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 선용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오니, ‘이번 시험 결과가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글은 기윤실(좋은나무)의 기사를 원저자 허락을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https://cemk.org/23863/>)

장로회

가을야외예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가을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에는 장로회 가을 야외예배가 있었습니다. 시무 장로와 은퇴 장로뿐 아니라 피택 장로 등 33명은 아침 9시에 정신여고 정문 앞에서 모여 송우제일교회에서 점심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광릉수목원에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가득한 장로회 가을 야외예배 모습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함



해외선교위원회
하나님의 선교

도서 기증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끼나위도서관은 필리핀 산지 지역의 빈곤 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꿈을 심어주며 믿음을 키우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끼나위도서관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으며 신앙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영어 교육을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배운 영어로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묵상 훈련을 통해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 양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끼나위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닌 러닝센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미술, 음악 등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끼나위도서관은 교육과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곳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신앙을 심어주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선교지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윤집자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약 5천여 권의 책을 끼나위도서관에 기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교회 근처 카페에서 윤집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윤집사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해 오신 책들인데 흔쾌히 선교지에 내어주신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집사님의 열정을 들으니 책을 기증하시는 결심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8월 초, 해외선교위원회에서 5천여 권의 책을 80kg짜리 박스 12개에 손수 포장해주셨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신 몸으로 그 많은 책들을 박스에 차곡차곡 담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포장해주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해외선교위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 두 달 후, 책을 담은 박스들은 무사히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한꺼번에 도서관으로 옮길 수 없어서 결국 박스를 하나씩 열어 책의 상태를 확인하고, 크기와 종류별로 소분하여 작은 박스에 다시 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류된 책들을 몇 번에 걸쳐 차량에 실어서 도서관으로 옮겨서 컨테이너도서관 바닥에 종류별, 난이도별로 펼쳐 놓았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종류별로 정리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5천여 권의 책을 분류하면서 목, 어깨, 팔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끼나위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서는 신바람이 붙었습니다. 분류를 마치고 책들을 책장에 정리하다보니 책장이 부족해서 한쪽에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정리된 책들을 살펴보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어른들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어 학습 자료가 부족했기에 이 귀한 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배우게 될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보내주신 책들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선교지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증해주신 책들 한 권 한 권이 소중한 다뤄진 흔적과 하드 코팅된 책들에서 느껴지는 세심함을 통해, 책에 담긴 윤집사님의 깊은 사랑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이제 이곳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우고, 더 나아가 영어 성경을 읽으며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가정은 이러한 귀한 책들이 단순히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깊이 있게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도서관 사역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윤집사님의 사랑과 열정이 깃든 이 책들이 선교지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동일한 열정으로 이 사역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선교사 한 명을 보내셔서 그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리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서 기증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교사 혼자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언제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도서 기증을 통한 헌신, 그리고 해외선교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이 사역에 힘을 합쳐주신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도서 기증이 단순한 책 나눔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교회와 함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더욱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지형 선교사 / 필리핀

책 박스 도착

보내주신 책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박스가 무거워서

적은 박스에 소분합니다. 박스를 열어 책상에도 확인하고 크기대로 분류합니다.

1차 정리 끝

분류된 책은 다시 쌓아두고, 적은 박스 책들을 조금씩 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책들을 도서관에 가져와서

먼저 종류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 바닥에 책이 가득합니다. 발딛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 어깨, 허리 그리고 팔

안아픈 곳이 없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은 신바람이 붙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가는데

책장이 부족합니다. 일단 책장 위에도 올려서 정리하고, 책장 한쪽은 무거운 책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튼튼한 책장을 좀 더 사야겠습니다.

정리된 책들을 보고 있으니

책부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넉넉해 집니다. 하나님께서 끼나위도서관을 또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와서 읽어 봐줍니다. 보지 못했던 책들을 꺼내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책을 봅니다.

SOLI DEO GLORIA

끼나위도서관 도서기증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변화될 아이들의 삶과 성장 해나갈 믿음을 조금씩 응원해 봅니다.

호스피스사역팀
독일 해로 호스피스

이렇게 행복한 고향 방문을 하다니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이야기로 가득하다.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해로 호스피스에서는 파독근로자 어르신 15명과 봉사자 5명, 모두 20명이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방문을 하였다. 환자들인 파독 어르신들과 2주 동안의 고향 방문을 꿈꾸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았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고향 방문을 할 수 없는 암환자와 장애인, 요양보호대상자 파독 1세대 어르신들의 마지막 소원인 “고향 방문”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적과 같이 응답 되어, 꿈에 그리던 고향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연세를 고려하여, 한 지역에서 이들 이상을 머무르며 고향 방문과 방문지의 주요 관광지도 둘러보고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경험하는 복합적인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많은 분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해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었다.

특별히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에서 손수 만들어 주신 ‘빨간 털모자’는 추운 베를린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었고, 이번 여행 내내 기쁘게 쓰고 다니셨다. 이 모자는 우리 어르신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었고,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게 해주었다. 김양자 장로님을 비롯한 호스피스팀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고향 방문이기에, 가족의 얼굴을 마주 보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이 있기에 고향 방문은 모두에게 큰 의미를 남

겨 주었다. 부모님 산소를 방문하여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린 어르신도 있었고, 고향 통영을 방문하여 ‘가고파’를 눈물로 노래하신 이모님도 계셨다. 또 방문하는 지역마다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하며 오래 쌓아둔 회포를 풀기도 하였다. 예전보다 많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며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고, 헤어질 때는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도 많았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든지 ‘애국가’라는 칭찬과 환대를 받으며 그 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마음의 보상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식사 초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마음의 선물들로 우리 어르신들의 여행을 즐겁게 해주었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으로 고향의 맛을 즐기며 많이 행복해하셨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하셨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파독 근로자 어르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많은 분이 기도하며 애써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외국인노동자로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믿는다.

독일 해로 호스피스 어르신들의 ‘행복한 고향 방문’을 위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박희명 목사 / 독일 호스피스 선교사



호스피스사역팀
한국호스피스협회
추계세미나

마지막 성장단계로 죽음을 바라보다

2024 한국호스피스협회 추계세미나가 “마지막 성장단계로 죽음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2024년 11월 2일 (토) 300여명의 전국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참석을 하여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지하1층)에서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아펜젤러 중창단 식전 공연과 김화수 담임목사의 축사, 호스피스사역팀 배운환 목사가 기도를 드렸다. 오전에는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으며, 점심 식사 후 호산나 무용단에서 고전 무용으로 공연하고 오후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에서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와 종합토의 및 생명 존중 결의문 낭독으로 추계세미나를 마쳤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사역팀은 주님의교회 봉사사역팀에서는 처음 생긴 사역팀으로 추계세미나 진행을 위해 30여 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하였다.

호스피스사역팀은 호스피스 환우분들을 위해 뜨개질로 사랑의 모자를 만들어 서울대 병원 독일 호스피스와 샘물 호스피스 등에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하며 여러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다.

함글함글



군경선교부
진중세례

2024년 마지막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에서

시월 첫 주말인 10월 5일(토)에 군경선교부와 함께 진중세례식을 다녀왔다. 이른 아침에 관광버스로 출발하여 한탄강 재인폭포 부근에서 전열을 정비 후 한 시 조금 넘어서 연천에 있는 어떤 부대의 신병교육대에 도착했다. 교회가 있었다. 그곳 교회의 이름은 항상 승리한다는 부대의 이름을 딴 상승교회였다.

훈련병 이삼백여 명과 함께 예배 중에 말로만 듣던 실로암 찬양을 실제로 같이 따라 불렀더니 격한 합성 소리에 모골이 송연하였다. “훈련은 전투다. 각 개 전투”를 추임새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한바탕 격한 꿈을 꾸는 듯 우리 주님의교회 군경선교부원들도 “십자가 군병들 아 주 위해 일어나”를 특송으로 올려드렸다.

상승교회 문영은 목사님이 로마서 6장 3절을 본문으로 세례의 참뜻에 대하여 설교하신 데 이어서 세례식을 집례하셨는데 훈련 중인 거의 삼백 명에 가까운 신병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현장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장관이었다.

주님의교회에서 준비한 기도(홍완식 장로님)와 성경(황용환 장로님)이 세례받은 용사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믿어졌다. 동행했던 장로님(신형섭, 정상기, 서정하)을 비롯하여 여러 권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을 줄 믿어진다.

신장로님의 초청을 받고 간만에 따라 나섰을 뿐인데 귀한 사역에 힘을 보태며 이렇게 탐방기까지 함글함글에 실리는 영광을 얻어 약간은 쑥스러움을 느낀다.

태고의 한탄강 깊숙한 계곡 속 재인폭포 공원 트래킹에 커피 한 잔 곁들이며 코스모스·유채꽃 흐드러진 화원을 주님의 지체와 거닐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으로 감사하다.

올 한 해 동안도 부지런히 군선교 사역을 섬기시느라 애써주신 홍완식 장로님과 복향수 부장집사님께 격한 사랑의 포옹을 전한다. 주님! 군선교부의 내년 사역도 즐겁고 행복한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인도 하소서. 아멘!

이효두 안수집사



(사)섬김과 나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웃사랑 특별지원사업

지역사회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해 설립된 (사)섬김과 나눔에서는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이웃사랑 특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계소득원 상실, 중증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되는 이웃들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예상치 못한 질병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일시적 긴급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43명에게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는 위기 환경의 아동·청소년지원입니다. 요즘 들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섬김과 나눔에서도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섬김과 나눔에서는 지난 10월 송파구청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안심케

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대 3년간 ▲자산형성 ▲건강관리 ▲자립역량강화 ▲통합사례관리 4개 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과 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교육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고,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질병을 방지하지 않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집단·개별상담, 집수리·식생활·금융 교육 등을 통해 직접적인 홀로서기를 돕고,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1대1 멘토링으로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1명의 대상자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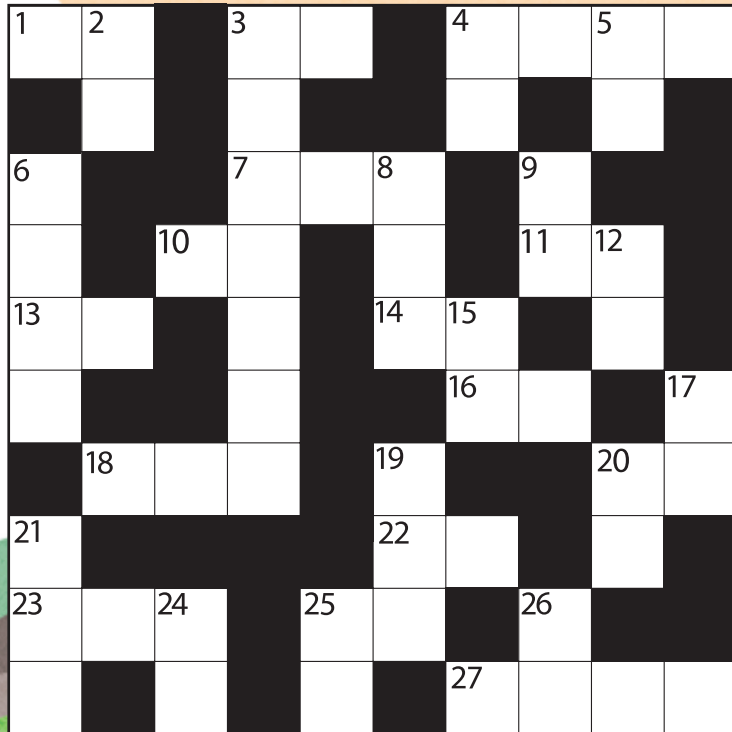
셋째는 교육 및 진로지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및 위기상황의 아동·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5명의 학생에게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섬김과 나눔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그들이 받은 나눔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사)섬김과 나눔에서는 ‘이웃사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돕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정은 특별지원부장 / (사)섬김과 나눔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하박국 편

이번 호는 <하박국> 편입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서로 전해집니다. 하박국과 여호와의 대화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91호 '나눔' 편 정답



가로 힌트

- 올바른 도리.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합 1:4)
- 어떤 사실을 적음. 일기도 중요한 이것이다. (합 2:2)
- 구약에서 슬픈 노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어. 다양한 형식의 글 모음이라고도 해석된다. (합 3:1)
- 정당하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은. (합 2:9)
- 어떤 대상이나 인물, 사상을 믿는 마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의미한다. (합 2:4)
- 가지고 있음.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합 1:6)
- 히브리어에서 무덤이나 땅 밑을 뜻하는 말. 죽음의 세계를 뜻하기도 한다. (합 2:5)
- 여러 사람을 통솔하거나 인도하는 것. 대부분의 악단에는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 있다. (합 3:19)
- 야외에서 햇볕이나 비바람을 가리기 위해 치는 천막. 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 (합 3:7)
-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박국도 이런 사람이었다. (합 3:1)
- 크게 성을 냄. 몹시 분개하여 노하는 것을 뜻한다. (합 2:15)
- 고대 현악기의 일종. 6~30개의 현을 가졌으며 음색이 밝아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개선을 축하할 때에 주로 연주되었다. (합 3:19)
- 자비롭지 않음. 인정없고 냉정함을 뜻하는 말이다. (합 1:17)
-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함께 부르는 말. 은행 이름에도 있다. (합 3:16)
- 물기가 많고 달콤한 열매가 다닥다닥 뭉쳐서 열리는 과일나무. 이 열매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 포도주이다. (합 3:17)

세로 힌트

-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합 1:4)
- 구약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위임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과 같은 거룩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 기리는 관행이 있었다. (합 3:13)
-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함. 법령과 같은 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합 1:4)
- 여럿 가운데 어떤 하나만. "○○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합 2:20)
- 스승같이 보이지만 거짓인 존재. 구약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합 2:18)
- 두 가지보다 하나가 적은 것. 세 가지보다는 두개 적은 것. (합 1:5)
- 주로 사람이 기거하는 곳. 집을 뜻할 수도 있지만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 (합 3:11)
- 이로움. 도움이 될만 함. (합 2:18)
- 주로 천이나 가죽으로 이어서 둘러치는 장막. 천막의 벽을 덮거나 무대를 가리는 용도로 쓰인다. (합 3:7)
- 크게 노하는 것을 뜻하는 말.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노하심을 뜻할 때 사용된다. (합 3:2)
- 조류 가운데 왕으로 알려진 새. '머리가 벗겨진 수리'라는 뜻이다. (합 1:8)
- 서로 다툼. 여러 이유로 복잡하게 얽혀 싸움이 나는 것을 뜻한다. (합 1:3)
- 도대체. 어떻게 해 보아도 통통 이해하거나 할 수 없거나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부사이다. (합 2:19)
- 어떤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합 3:17)
-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 형상.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것을 경계하셨다. (합 2:18)
- 바다나 큰 호수 등에서 바람에 물결이 일어 밀려오는 것. 이것을 타는 스포츠도 있다. (합 3:15)

제5회

함	즐	함	울				
신	춘	문	예	공	모		

○ 공모 부문

- 시 | 3편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간증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접수 마감

2024.12.20(금) 24:00

○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5년 함즐함울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

○ 보낼 곳

- pclhamletter@naver.com

메일 제목에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각 부문 별 최소 응모 편수 이상을 보내주셔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이전에 함즐함울 신춘문예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 대상 및 최소 응모 편수에서 제외합니다.

함즐함울에서 제5회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문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짧고 강한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긴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쓰는 것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지 고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힘이 더욱욱 필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주님이 주신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쳐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주님의교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전 3:22a)” SKY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수험생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즐거운 일을 찾아 HEAVEN을 꿈꾸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수험생 명단 (167명)

강보민 강준석 강진영 강태이 고연서 고정우
곽민서 국나현 권민재 권순유 권준하 권지우 기미정
김건우 김도연 김도현 김민성 김보린 김보민 김상훈
김재복 김서원 김서운 김성진 김소은 김승민 김승언
김승연 김승우 김승주 김승현 김예은 김에서 김예찬
김윤희 김은서A 김은서B 김이한 김정은 김정운B 김종하
김주은 김준영 김지오 김지형 김지호 김지후 김진의
김찬흠 나경주 나윤주 남연준 노윤서 노진우 문수인
문은솔 문혜주 민지홍 박강비 박상범 박성현 박세현
박시아 박시영 박윤하 박정수 박주안 박지수 박 희
방주원 배영민 배원영 백예림 백인겸 서민채 서 봄
서여준 설연우 성 신 손다운 손정원 송주훈 송진우
신성범 신윤경 신인호 신정규 신진하 신현아 안미현
안세현 안소희 안지영 여승준 여정현 오승준 오예원
오택원 오택훈 오하영 오현수 위정연 유민아 유지호
윤서준 윤석현 윤시현 윤현빈 이건형 이다경 이도운
이서우 이서진 이석찬 이성준 이소리 이수민 이시우
이아린 이여름 이요한 이유준 이윤규 이은서 이인호
이재현 이정민 이준영 이지아 이태인 이희규 임서영
임세린 임유찬 장석원 장정빈 전소영 전승미 전예지
전우성 전효재 전희주 정 준 정성원 정승준 정유수
정유현 정호영 정휘준 조민준 조원준 주현규 천예선
최가은 최석원 최소망 최예원 최예진 최지웅 함채원
허 윤 허지우 홍민우 홍세연A 홍세연B 황유정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

• 2024 •

11.17 (주일)
8AM - 2:20PM
1층 로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_누가복음 10:2

교회일정

11/10 (주일)	정기당회
11/17 (주일)	사역박람회
11/27 (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2학기 종강

알립니다

1. 수험생 축복의 시간

일시 : 11/10(주일) 1부 예배

2. 수능일 연합 기도회

(연합 : 주님의교회, 하늘비전교회)

일시 : 11/14(목) 오전 8:30~

장소 : 하늘비전교회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3. 여전도회 연합예배 및 총회

일시 : 11/13(수) 오전 11:00

장소 : 중예배실(지하)

문의 : 배윤희 목사(010.3138.3262)

모집합니다

1. 주차안내부원 모집

모집인원 : 2부(08:30~10:30) 3명

3부(10:30~12:30) 3명

문의 : 이성옥 안수집사(010.8695.7102)

2. 주방봉사자 모집

대상 : 주방 봉사 마무리팀

시간 : 주일 12시~2시

문의 : 신형섭 장로(010.5628.7957)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